

한국물환경학회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8년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Water 르네상스 2008

- 일시 _ 2008년 4월 25(금)~26일(토)
- 장소 _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주최 _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 주관 _ 한국물환경학회
- 후원 _ 서울특별시, 환경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협찬 _ (주)건화, 고려개발(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롯데건설(주), (주)금호건설,
(주)범한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주), 쌍용건설(주), 코오롱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한국수자원공사, (주)한국종합기술,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KG엔지니어링

B 발표장 : 지속가능한 생물환경기술

● 환경분석 모니터링

2008년 4월 25일(금) 09:30 ~ 10:50 B발표장(창의관 117호)

좌장 : 김인수(광주과학기술원)

B-1 09:30 ~ 10:00 SeaHERO 프로그램과 막오염 센서 연구

[초청강연] 김인수·오병수(광주과학기술원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

이진욱·정지연(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BEEL 연구실)

B-2 10:00 ~ 10:10 고무공장 배출수의 독성동정평가

Xianliang Yi·Jinho Jung(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Eunhee Kim(BK21 Environmental&Ecological Engineering Research Team, Korea University)

B-3 10:10 ~ 10:20 전기분해와 활성탄 흡착의 응용에 의한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저감

정종식·팽지영(육성화학(주) 기술연구소), 이재복(경성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B-4 10:20 ~ 10:30 도시 하수/하천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유해성 조사

오향균·진현미·박준홍(연세대학교)

B-5 10:30 ~ 10:40 하수의 농업적 재이용에 따른 미생물 위해성 평가 및 MS2를 이용한 Viruses 간접 분석

이한필·윤춘경·이승재·손장원(건국대학교)

B-6 10:40 ~ 10:50 방화제 TCEP가 환경농도에서 primary cultured renal proximal tubule 세포의 cell cycle 조정인자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Xianghao Ren·김인수(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과)

이유진·한호재(전남대학교 수의대)

● 환경생물기술

2008년 4월 25일(금) 13:30 ~ 14:50 B발표장(창의관 117호)

좌장 : 박준홍(연세대학교)

B-7 13:30 ~ 14:00 탈질화 상향류 층진층 반응기에서 퍼크로레이트 제거에 대한 염도의 영향 조사

[초청강연] 이주형·박준홍(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신성훈·오재일(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B-8 14:00 ~ 14:10 연속식 전자빔 조사에 의한 연안적조제어 가능성 연구

강호·임선애(충남대학교), 김유리·한범수((주)EB Tech.)

B-9 14:10 ~ 14:20 Effects of Neutral Electrolyzed Water on Removal of Blue Green Algae and Pathogen Bacteria

Xiaohong Yang·Eulsaeng Cho·Wook-Jin Chung(Myongji University)

B-10 14:20 ~ 14:30 입상 활성탄 여과지에서 세균의 재성장과 생물막 형성 세균의 분리 및 동정

이규철·이정임·김기돈·이상태(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수돗물분석연구센터)

B-11 14:30 ~ 14:40 바실러스와 일반슬러지의 유기물 산화 비교

권기욱·배우근·김승진·정철중(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도시 하수/하천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유해성 조사 Microbiological Evaluation of Antibiotic Resistant Microbial Risk in Sewage/River in Seoul

오향균·진현미·박준홍[†]

Hyangkyun Oh·Hyunmi Jin·Joonhong Park[†]

연세대학교

1. 서론

최근 들어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출현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항생제 혹은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검출하는 생태유해성 및 보건 유해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한편,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은 저영양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Colwell et al., 1985). 그러나 일반적인 고영양성 배양방법으로는 환경시료 내 미생물들을 분리해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은 환경시료 내 미생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서울시 하수/병원폐수/하천 내에서 영양조건에 따른 병원성·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검출하고, 그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넓은 영양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배양방법을 통한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유해성 모의판정
- ② 환경시료 내에서 항생제내성 유전자 검출 기법 최적화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도시 내 4대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 도시를 관통해 흘러가는 강물의 5지점(상류부 2곳 포함)에서 2007년 8월 22~23일, 11월 6일~7일에 샘플을 채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저영양성 뿐 아니라 고영양성 미생물도 함께 배양하기 위해서 일반 미생물배양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고영양성 물질인 LB(Luria-Bertani Broth)와 이를 10^{-4} 배 희석해서 만든 저영양성 배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환경 내의 저영양성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R2A agar를 이용해서 만든 배지를 환경시료 내의 미생물을 검출하는데 이용하였다.

저영양성 수질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배양·검출하는 방법은 이미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박준홍 외, 2007 ; 오향균 외, 2007) 또한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을 위해서 선택배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출한 미생물은 *Staphylococcus aureus*, *Vibrio cholerae*, *Enterococcus faecium*,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iphy*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항생제 내성 미생물과 병원성 미생물을 배양·검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도시 내 하수/하천 시료에서 항생제 내성 저영양성 미생물을 검출 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저영양성 배지에서 자라난 콜로니들을 확인 해 본 결과 *Acinetobacter*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을 검출 해냈다. 이는 통상적인 고영양성 배지로는 불가능한, 저영양성 미생물을 검출해 냈으므로써 보다 더 많은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미생물의 유해성 또한 확

박준홍 · E-mail : parkj@yonsei.ac.kr

인 할 수 있었다. 병원성 미생물인 *Staphylococcus aureus*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이 되었다. 이는 수영장 물에서 *Staphylococcus aureus*가 1마리/ml기준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내 물환경 시료가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 유해성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 미생물 유해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배양조건과 시료채취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처리된 하수 방류수의 최대 항생제 내성을 71.0%, 한강수의 최대 항생제 내성을 81.2%로 상당한 수준의 항생제내성 내성을 나타낸다. 또한 가을시료 내 처리된 하수방류수와 하천 수에서는 여름시료에 비해서 LB배지에서 배양된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을 높았고, 가을시료에서는 저영양성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을 여름보다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배양배지의 종류(LB, LB 10^{-4} , R2A)와 영양조건에 따라서 측정된 항생제 내성을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환경시료 내 항생제내성미생물 유해성 평가의 실현화를 위해서는 배양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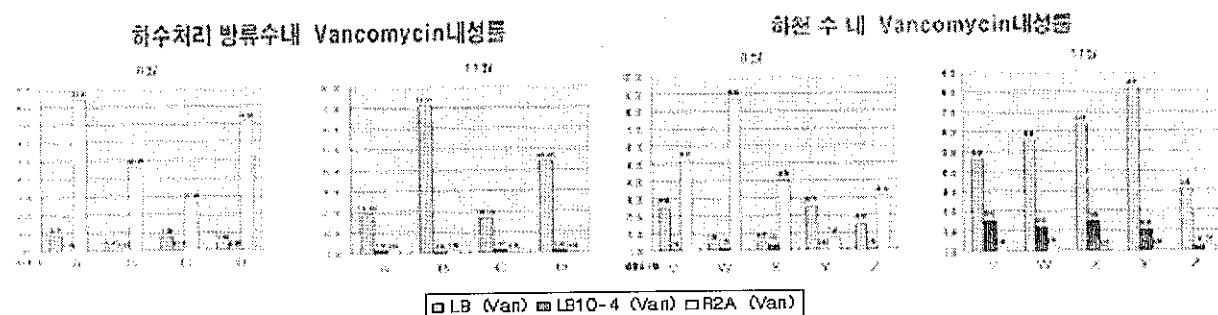


Fig. 1. 하수/하천수내 항생제 내성을

4. 결론

- 1) 배양 배지의 종류와 영양조건에 따라서 측정된 항생제 내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시료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유해성 평가 실현화를 위해서는 배양방법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병원성 미생물의 경우, 선진외국에서 규제 대상인 수인성 질병유발 미생물 분석항목은 하수방류수와 하천의 수질 기준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강 하천수와 하수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항생제내성 유해성을 보인 점을 감안 할 때, 항생제내성 미생물 분석항목도 수질기준에 추가하여 서울시 상수원과 하천의 미생물유해성 관리 수준을 국제 선도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참고 문헌

- 박준홍, 오향균, 이제진, 조윤상, 최문석(2007). 환경시료에서 저영양성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분리배양 및 항생제 내성에 의한 미생물 유해성 진단방법. 특허등록번호 10-0775034-0000.
- 오향균, 이제진, 이제영, 박준홍(2007). 다양한 물 환경시료에서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유해성검출을 위한 배양 방법 개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7(6B).
- Colwell, R. R., Brayton, P. R., Grimes, D. J., Roszak, D. B., Huq, S. A. and Palmer, L. M. (1985). Viable but non-culturable *Vibrio Cholerae* and related pathogens in the environment : implications for release of genetically engineered microorganism. *Bio Technology*, 3, pp. 817-820.